〈혼다 '어코드'〉

〈렉서스 'LS600hL'〉

광주·전남 수입차 점유율 '쑥쑥'

〈폭스바겐 '뉴비틀'〉

수입차업계의 광주·전남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외제차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입차업계가 광주에 전시장을 잇따라 오픈하는가 하면 저가의 디젤 모델 등 다양한 차량 출시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선 고가 브랜드인 렉서스의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실용성을 앞세운 혼다의 판매량은 급성장하는 등 브랜드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올해 광주 수입차 판매 43% '껑충'**=2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광주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397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7대)에 비해 43.3%(120대)나 늘어난 것으로, 5월 한 달간 100대가 판매될 만큼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판매량
광주 43%·전남 58% 증가

브랜드별로는 혼다가 올 들어 5월까지 101대가 판매돼 전체 수입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혼다는 또 5월 한 달간 38대가 판매될 만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어 ▲폭스바겐(55대) ▲포드(43대) ▲아우디(41대) ▲렉서스(33대) ▲BMW(32대) ▲크라이슬러(25대) ▲벤츠(23대) 등의 순이었다.

〈포드 '이스케이프'〉

이같은 상황은 전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전남은 올들어 5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이 172대에 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09대)보다 57.8%(63대)나 늘었다.

브랜드별로는 혼다가 41대로 가장 많았으며, ▲BMW(20대) ▲폭스바겐(20대) ▲크라이슬러(18대) ▲포드(16대) ▲벤츠(11대) 등이었다.

■ **올해 광주·전남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 현황**

(2008. 1. 1 ~ 5. 31)

브랜드	광주	전남
혼다	101	41
폭스바겐	55	20
포드	43	16
아우디	41	8
렉서스	33	7
BMW	32	20
크라이슬러	25	18
벤츠	23	11
푸조	15	4
볼보	11	4

◇**올해 광주 수입차시장 혼다 '뜨고' 렉서스 '지고'**=올해 광주 수입차시장은 혼다의 도약과 렉서스의 추락으로 요약된다.

렉서스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에서 총 53대가 판매돼 지역 내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수입차 등록분의 19.1% 수준이다. 당시 광주에서 팔린 수입차 5대 가운데 1대는 렉서스였던 셈이다.

하지만 렉서스는 올 들어 판매량이 37.7%나 급감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8.3%로 '곤두박질' 했다. 그나마 렉서스는 SUV인 'RX 400h' 등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유지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혼다는 올해 지역 내 수입차시장 점유율이 25.4%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이 9.0%(25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2.7배 이상 고속성장한 것이다.

혼다가 이처럼 눈부신 도약을 한 데는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인식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혼다코리아가 지난 4월 북구 중흥동에 광주전시장을 오픈한 것도 지역 내 판매량 급증에 주된 요인이 됐다.

혼다는 광주에서 '어코드'와 콤팩트SUV인 'CR-V'를 주력 차종으로 판매해 수입차에 관심이 높은 20~40대에 어필했다는 평가다.

광주는 혼다에 이어 아우디가 10.3%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폭스바겐(13.9%) ▲포드(10.8%) ▲렉서스(8.3%) ▲BMW(8.1%) ▲크라이슬러(6.3%) ▲벤츠(5.8%) 등의 판매고를 올렸다.

〈아우디 'R8'〉

◇**광주 수입차시장 14개 브랜드 경합**=현재 광주에는 혼다와 폭스바겐, 아우디 등 13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북구 중흥동과 유동, 서구 화동동과 치평동 등 9곳의 전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닛산의 럭셔리 브랜드인 '인피니티'도 조만간 서구 쌍촌동에 전시장을 열 예정이어서 향후 광주에서는 총 1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무한경쟁을 펼치게 된다.

특히 북구 중흥동의 경우 주변 500m내에 혼다와 아우디, BMW, 포드 등 유명 수입차 매장이 밀집할 만큼 '수입차 거리'로 자리매김 했다. 닛산이 입점하는 쌍촌동과 치평동 일대도 기존 렉서스와 크라이슬러 등이 꾸준히 수요층을 확대하고 있다.

혼다 늘고 렉서스 줄어
브랜드별로 희비 교차

이밖에도 광주는 벤츠, 푸조, 폭스바겐 등 3개 수입차 전시장이 위치한 서구 화정동이 신흥 '수입차 거리'로 꼽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로 인해 해마다 국내 수입차시장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광주·전남 등 지방의 수입차시장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크라이슬러 '뉴세브링'〉